

# 아이스하키부 박재욱 주장, “1승 위해 끝까지 달린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nu.ac.kr

#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곱 번째 주인공으로, 아이스하키부 주장 박재욱(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만나봤다.

## 아이스하키에 대한 사랑 “언제나 하키 생각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아이스하키 생각만 했다는 박재욱 선수는 하키 외에는 좋아하는 운동도 없다. 졸업할 때가 되면 진로 걱정도 있기 마련이지만, 박 선수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아이스하키를 더 하며 살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키를 사랑하는 그에게도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던 때는 있었다. 박 선수는 “경기가 계속 안 풀릴 때, 슬럼프가 왔을 때, 크게 부상을 당했을 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



내년 2월 동계체전 출전을 앞둔 박 선수는 “결과를 떠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벽한 마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 선수 제공)

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하루이틀만 쉬어도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며 마음을 다잡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스하키의 묘미는 ‘격한 몸싸움’이다. 경기 도중 선수들 간의 싸움을 용인하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관중들에겐 볼거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 몸싸움을 박 선수 또한 아이스하키의 재미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겪은 부상도 많았다. 후방 십자인대

가 끊어졌고, 허리 디스크 파열과 어깨 탈골 심화까지 겪었다. 특히 심각했던 십자인대 부상 당시를 돌아본 박 선수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며 인내 강화 주사를 맞으며 6개월 만에 팀으로 복귀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 부족한 선수층 이뤄내지 못한 소중한 1승

현재 아이스하키부가 있는 대학

은 우리학교와 고려대, 광운대, 연세대뿐이다. 한양대의 경우 2019년 이후로 U-리그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체 수순을 밟았다. U-리그가 열리는 남자부 5개 종목 중 아이스하키는 참가대학이 10개가 안 되는 유일한 종목이다. 참가대학 수 부족뿐만 아니라 아이스링크 대관도 시간적·금전적으로 어렵다. 그로 인해 한 시즌에 치르는 경기 수가 타 종목에 비해 적다. 박 선수는 “1년에 6경기 정도를 뛰는데,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선수층도 부족하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2명이, 광운대는 25명이 등록된 반면에 우리학교 아이스하키부는 17명뿐이다. 이로 인해 경기 중 체력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박 선수는 “초반엔 비등비등해도 마지막 3피리어드엔 체력 문제로 밀린 경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승리하기 위해 각자 체력 훈련에 더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절하게 노력하고 궁리했지만, 아직 대학에서의 1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박 선수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매 경기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입학했을 때보단 인원이 늘었고, 졸업 이후엔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마지막 대회 동계체전에 집중 앞으로는 지도자로서의 꿈도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의 미래도 그리고 있다. 대학 입학 이후, 박 선수는 학업과 아이스하키를 가르치는 일을 병행해 왔다.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는 박 선수는 “먼저 다 가야 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새내기 시절 있었던 멘탈 문제 가 자연스럽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올해는 감독의 선택을 받아 주장까지 맡게 됐다. 일반인 클럽팀 대회에서는 감독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박 선수는 “선수일 때 ‘짜릿함’을 느꼈다면, 감독일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하키에서 사용하는 볼)을 컨트롤 하는 방법, 스케이트를 더 빨리 타는 방법을 가르쳤을 때 성장하는 게 보이면 직접 뛸 때와는 다른 기쁨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2월에는 박 선수가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동계체전이 열린다. 시합에 집중하기 위해 박 선수는 클럽팀 감독직도 내려놨다. 박 선수는 “결과를 떠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벽한 마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 시대의 희망을 품은 탑, 평화교육을 일군 한 마디

장현석(경희기록관)

## 경희의 유산⑥ 『광릉캠퍼스 평화의 탑』

경희의 캠퍼스 곳곳에는 여러 형태의 탑이 세워져 있다. 탑에 새겨진 글귀와 조각에는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캠퍼스 교시탑,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 오벨리스크, 광릉캠퍼스 평화의 탑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평화의 탑은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평화의 탑은 1990년 9월 18일 제9회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평화복지대학원 본관 서측 언덕에 건립되었다. 높이 10m의 탑 상단에는 한반도를 정면에 둔 지구와 그 위로 비상하는 평화의 비둘기가 자리하



평화의 탑 제막식에서 1986년 전달된 평화의 횃불을 탑신 양옆의 성화대에 옮겨 점화했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고, 탑신 전면에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유훈인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1981년 6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6차 IAUP(세계대학총장회) 종회에서 설립자가 발표한 기조연설 제목이다. 당시 그는 ‘세계 평화의 날’

해’의 UN 제정을 제안했는데, 코스타리카 정부를 통해 그해 11월 제36회 UN 종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평화운동을 실천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4년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했

다. 한편 탑신 후면에 새겨진 ‘지구촌·인류가족·세계공동체’는 설립 자가 주창한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의 핵심 개념으로, 경희가 지향하는 평화로운 세계의 이상을 보여준다.

탑신 앞에는 평화를 환영하듯 두 팔을 벌린 날개 달린 여신상이 서 있다. 기단 전면에는 무궁화가, 후면에는 경희인을 상징하는 목련이 꽃봉오리에서 만개에 이르기까지 네 단계로 표현되어 있다. 마치 이 땅에서 시작된 경희의 평화적 지향과, ‘지구촌·인류가족·세계공동체’를 구성할 인재의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탑신 양옆의 향아리형 성화대이다. 하나는 ‘세계 평화의 날 제정 기념’, 다른 하나는 ‘평화의 횃불 봉송 점화 기념’이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1986년 세계평화의 해를 기념하여 UN이 기획한 ‘세계 일주 성화 달리기

(First Earth Run)’와 연결된다. “인류에게 기회를, 어린이에게 평화를”이라는 슬로건으로 39개국을 순회하는 이 행사에서 ‘평화의 횃불’이 11월 15일 밤 한국에 도착했고, 이튿날 여의도에서의 기념식을 거쳐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성화를 밝혔다. ‘세계 평화의 날·해’ 제정에 경희가 이바지한 덕분에 가능했던 장면이었다. 이 불꽃은 1990년 평화의 탑이 세워지고 양옆의 성화대로 옮겨져, UN에서 출발한 평화의 염원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사진 3).

이처럼 평화의 탑은 경희의 평화를 향한 여정과 교육적 비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하나의 형상으로 응축된 조형물이다. 단순한 기념 구조물이 아니라, 경희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추구해 온 평화적 가치가 오늘날 캠퍼스 공간 속에서 계속 숨 쉬고 있음을 증언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